

이정우 선생님의 「1976년 태국 탐마삿 학살, 홀로코스트와 청년 정치」

먼저, 흥미로운 글을 읽을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귀한 연구를 해오고 계신 이정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속한 한국학에서는 나에 의한 나의 연구(자국학), 남에 의한 나의 연구(한국학)가 중심을 이룹니다. 나에 의한 남의 연구(지역연구), 남에 의한 남의 연구(타국학)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지요. 다만 앞으로 한국학이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또 타자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한국이라는 의미망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같이 의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태국정치를 현장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연구를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¹⁾ 제가 아주 이 주제에 적합한 토론자는 아니지만, 그렇기에 또 다른 청중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연구의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구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왜 기존의 왕실 중심의 태국 정치 체제에 비판적이며, 나아가 캄보디아와의 전쟁 반대와 국제적 연대 지향이라는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배경을 길게는 1932년 혁명과 짧게는 1976년 탐마삿 학살의 역사적 기억에서 찾고 계십니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이러한 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 결과 평화 지향적 정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기억’을 단순한 과거 인식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생산하는 장치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3 계엄의 밤을 한국현대사와 겹쳐서 기억하는 한국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태국 청년 세대가 1932년 혁명을 ‘반왕정 정치’의 상징으로 재해석하고, 탐마삿 학살을 반복되어서는 안 될 폭력의 역사로 기억한다는 분석은 기억이 현재 정치의 언어로 작동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억 연구와 정치사회화 연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로서 흥미롭게 본 부분은, 청년 세대의 반권위주의적 태도가 단지 국내 민주주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전쟁 반대와 국제적 연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흔히 일국 내 분석으로 그칠 수 있는 정치(사회)학 연구가 국제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전체 회의 주제인 ‘글로벌 우경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제 본 발표가 제기하는 핵심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글 이외에도 토론문 작성을 위해 참고한 태국정치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우, 「태국의 세대 정치: 세대의 차이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동남아시아연구』 33권 4호, 2023; 이정우, 「태국 MZ 세대의 SNS 활용,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43권 2호, 2024; 현시내, 「민주화를 위한 과거와의 대화: 태국의 1973년과 2023년」, 『동아연구』 43권 1호, 2024; 이숙연, 「태국의 대 캄보디아 국경분쟁 확산과 문민통제의 붕괴」, 『동아연구』 45권 1호, 2026.

1. 먼저, 본 연구는 현대사의 유산이 청년 세대의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실제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이미 형성된 태도를 정당화하는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형성된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한 과거를 선택적으로 소환하는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억이 정치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 태도가 기억의 선택을 이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억의 정치적 활용과 기억의 인과적 효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연구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들어가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2. 또 하나의 질문은 세대 경험 외의 요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발표에서도 교육 수준, 시민사회 성장, 선거 경험, 디지털 환경 등의 요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정치적 태도 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에서는 역사 기억의 영향과 사회경제적·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분리하여 검증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또 왕정 반대/비판 민주주의와 캄보디아와의 평화 노선 흐름은 한국의 상황에 비유해본다면, 북풍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태국 민족주의(국가주의) 노선의 발로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태국정치 전공자의 섬세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이나 선생님의 관찰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4-1.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2개입니다. 제목에 들어가 있는 탐마삿 학살 사건은 발표문에서 소략하게 소개된 듯 합니다. 태국 민주주의 운동 세대들에게 1976년 탐마삿 학살은 어떤 의미이며, 또 이와 유사한 여러 경험들이 어떻게 청년층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 현재 태국 청년층의 '의식화'의 경로가 궁금합니다.

4-2.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신화로서 '절대화'되어버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보다는 집단학살이나 대량학살 등의 용어로 표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혹은 이 말이 태국정치에서도 쓰이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²⁾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태국 청년 정치의 특성을 역사 기억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대 경험, 기억 정치, 외교 태도를 하나의 분석 틀로 묶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기억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 기억이 실제로 정치 태도를 형성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는 언어인지에 대한 인과적 검증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는 동남아 정치 연구뿐 아니라 세대 정치 연구 전반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장감 있는 좋은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던 태국인들이 다수 납치/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보호, 하마스를 비판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태국의 중립 외교적 행보와, 최근 벌어진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